

선생님 우리 함께 책 읽어요

강화중, 도서관 행사 진행

강화중학교(교장 최화영) 도서관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9월 전반에 걸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도서관 행사를 실시했다.

강화중학교 도서관은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을 장려하고 독서 흥미를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열고 있다.

이번 독서의 달 행사는 교내 독서 시상 및 생활기록부 독서활동상황 기재의 근거가 되는 '2학기 독서감상문 시자' 프로그램과 함께 선생님과 학생들이 독서와 정을 나누는 '선생님! 우리 함께 책 읽어요', 강화중학교 학생들이 책을 읽는 모습을 공모한 'The Reader' 사진 공모전'이 있다.

또한 '사랑 그 소중함' 행사를 통해 가족, 친구, 연인 등 다양한 사랑을 다룬 대상 도서들을 읽고 공유할



을 작성해 제출한 학생에게는 선착순으로 행운의 상점 마티모 세트를 함께 만들기도 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1학년 학생은 "평소 좋아하는 선생님이 내가 재미있게 읽은 책을 간식과 함께 전해드릴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다른 학생은 "재미있는 책도 읽고 예쁜 식물을 선물 받아 이번 행사가 오래

기억날 것 같다. 다음에도 이런 행사를 또 했으면 좋겠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최광호 교장은 "강화중학교 도서관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다양한 독서 활동을 권장하고 독서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는 계획을 밝혔다.

인문협 기자 as@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시간

인천부개서초, 다문화반 가을 문화체험 실시

인천광역시서북교육지원청과 인천부개서초등학교(교장 이종인)은 지난 9월 24일 2016 북부 다문화 교육 무지개반 가을 문화 체험을 서울 덕수궁과 충정로 난타극장을 진행했다.

현재 부개서초등학교는 인천 북부 다문화 교육 거점학교 및 북부교육지원청 다문화 교육 중심학교로 지정돼 다문화 교육과 가정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특별히 이번 '다문화교육 무지개반 가을 문화 체험'은 다문화 교육 거점학교 사업의

하사로 인천부개서초등학교, 삼산유치원, 인천청천초등학교, 인천개초초등학교, 인천점초등학교, 인천부동초등학교, 인천부평동초등학교, 부평중학교, 부일여자중학교(북부 다문화 교육중심학교 9개교)가 주관해 진행했다.

이 행사에는 관내 3개의 중학교(부평중, 산곡남중, 부일여중), 17개 초등학교(인천산곡초, 인천청천초, 인천산곡초, 인천개초초, 인천동양초, 인천상정초, 인천하정초, 인천심정초, 인천부흥초, 인천산곡초,

인천영선초, 인천부개서초, 인천구산초, 인천부일초, 인천부평동초, 인천굴포초, 인천부평남초)와 4개의 유치원(삼산유치원, 인천부개초병설, 인천백운초병설, 인천용마초병설)의 160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한국의 대표악기 고궁, 덕수궁에서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은 가을의 정취와 함께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만끽했고, 이종삼 교장의 '백 년의 신화 전시회'를 통해 깊이 있는 미술 작품 감상의 기회도 가졌다.

마지막으로 난타 공연을 관람해 우리 음악의 흥겨움을 공유했다.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은 연향체험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며, 한국 문화에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인문협 기자 as@



우리학교에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인천능허대초, 바나나 나무에 열매 열려

인천능허대초등학교(교장 이병수) 정원은 바나나 나무가 있음에 놀랐고, 매일 매일 학생들의 등굣길을 이색적으로 밝히는 그 나무가 신기하고 이제는 전말하기까지 했다. 그 나무에 실마렸는데 열매를 열 때를 맞는 기쁨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

아무리 여름이 무더워도, 열대우림이 아닌 중부 지방의 한 평범한 학교에 이런 열대우림이나 제주도에서나 열리는 바나나가 열리는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많은 이들은 학교장의 돌봄으로 열매

의 결실이 생겼음을 학생과 전 교직원 은 알고 있기에, 그 열정을 사람들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보통 볼 수 있는 열대지방의 바나나 모양과는 다르지만, 인천의 자연환경 풍기 소문난 능허대초에 드디어 옮겨 심은 지 2년 만에 결실을 보여주는 기쁨을 안겨줬다.

정문에서 교정으로 향하는 도로의 오른쪽을 색다르게 장식해 겨울에도 푸름과 여름의 답답함을 지워주는 모습으로 등굣길을 지켜주는 단 한 그루의 바나나 나무가 있기에 등굣길이 즐거워지고 있다. 인문협 기자 as@

인천시교육감기 초등학생 수명대회 개최

인천시교육청은 9월24~25일 2일간 '제2회 인천광역시교육감기 초등학생 수명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183개 초등학교에서 등록 선수와 비등록 선수로 나뉘어 자유형, 배영, 평영, 접영, 계영 종목에 총 1,657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는 서북교육지원청 초등학교와 중학교 체육과교과연구회 선생님을 중심으로 대회 운영진이 이루어졌으며 인천광역시 수영연맹에서 심판진을 구성하여 진행에 참여하였다. 또한 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하고자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경기장 내에 응급처치가 가능한 보건실을 설치하여 안전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종합 우승 인천성지초등학교, 종합 준우승 인천굴포초등학교, 종합 3위 인천효성남초등학교가 차지하였다. 최우수선수상 등록 부분은 인천성지초등학교 여대경 학생, 비등록 부분은 인천성지초등학교 연수원 학생이 수상했다.

이처럼 교육감은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초등학교 시절 학교를 대표하여 경기에 참가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매우 소중한 추억이 될 것이며 그 동안 갖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멋진 승부를 펼치기를 기원합니다"라고 말했다.

인천서북교육지원청, 주민 참여예산 분과위원회 개최

인천서북교육지원청(교육장 양동현)은 9월 26일 서북교육지원청 3층 소회의실에서 지역 주민이 제안한 교육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참여예산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다. 2016년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3주간 예산사업 공모, 인터뷰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제1회 주민 참여 예산사업과 관련된 학교 교육환경개선과 3건에 대한 2016년도 예산 반영 여부를 분과위원회 3명,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였다.

학생·학부모 하나되어 함께 축제 즐기기

인천하정초, 하정 어울림 축제 성황리에 마쳐

인천하정초등학교(교장 구자신)는 지난 9월 21일 완월터 강당에서 전교생 300명과 학부모, 지역사회 어른 등 400여 명의 관람객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가 행복한 배움공동체 하정 어울림 축제'를 실시했다.

학생들은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활동, 방과후학교 등에서 길고급은 솜씨를 마음껏 발휘했다.

특별 교실에서 준비한 난타로 화려하게 막을 열었고 이어 14개 학급의

전교생 모두가 프로그램 순서에 따라 무대에 올라 춤, 무용, 악기연주, 음악 놀이기, 합창, 카드섹션, 학생 및 교사밴드 등 다양한 종류의 기량을 선보였으며, 무대에서 벌어지는 열띤 공연은 축제에 참여한 학생들과 학부모 모두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특히 드림 업(Dream Up) 밴드가 연주할 때에는 모든 학생과 축제를 구경하러 온 학부모도 함께 따라 하



이날 전시된 작품들은 2016학년도 학습 결과물로, 어울림축제를 관람하기 위해 방문한 학부모들은 자녀의 작품을 찾아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멋진 솜씨에 호평을 감추지 못했다.

구자신 교장은 "인천하정초등학교는 앞으로도 따뜻한 감성과 배움의 즐거움이 있는 행복한 하정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해 학생들의 꿈·기·육성과 전인적인 인성 형성을 위해 꾸준한 노력할 예정이다"는 포부를 밝혔다.

인문협 기자 as@

우리학교만의 특별한 사랑 나누기

덕적중고등학교, 너나들이 캠페인 진행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유초중고(교장 윤일환)는 9월 22일 점심 상담주간 학교 폭력예방 및 생명존중의 하나로 등교 시간에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들이 서로를 안아주고 격려하는 너나들이 캠페인(히그데이) 행사를 했다.

이번 행사는 교내에 힘들고 상처받은 친구들을 위로하고 마음을 녹여주며 서로의 얘기를 들어주는 생명존중과 학교 폭력예방의 목적으로 실시했다.

인천 시내 학교들과는 달리 학원이 나 다른 놀이 시설이 없어 학교 외에

는 학생들이 활동 공간이 적은 관계로 모든 학생이 학교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낸다.

중고생 전원은 저녁 식사 후에도 방과 후 학교와 야간 자율 학습 등으로 학교에 남아 생활하기 때문에 서로를 잘 알고 있다고 하나 한쪽 구석에 남아 있는 응어리를 표현할 수 없던 상황자들에게 얘기하고 서로의 고민을 들어 준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동아리 회장 유지민(2학년) 학생은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이 매우 힘들었지만 모든 선생님과 학생들이 서로 안아주고 격



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소규모 학교인 우리 학교만의 특별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인문협 기자 as@

학교환경 청결지킴이

사회적기업(예비) 새한에이치엠 입니다

주요 사업내용

- 학교청소 인력, 경비인력 파견 및 관리
- 건물 내외 청소, 바닥청소 및 코팅, 유리창 청소, 학교 대청소
- 수목수목, 모래수목, 교실(특별실)수목, 급식실수목
- 저수조 청소 및 소독, 배수로 청소, 폐기물 처리
- 냉난방기 청소, 선풍기 청소
- 급식실 후드(덕트) 및 바닥 청소
- 각종 청소용품 및 장비 납품

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197번길 14, 102호
 Tel. 032-426-9399, Fax. 032-426-9397
 서북지사 : Tel. 032-512-3782, Fax. 032-724-0782

www.사회적기업(예비)saehan.com

Saehan